

勞 動 經 濟 論 集

第17卷, 1994. 12. pp.~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國家競爭力 強化와 高學歷 失業問題

朴 東 雲*

< 目 次 >

- | | |
|------------------------------|--------------------|
| I. 序 論 | IV. 高學歷 失業의 發生과 解消 |
| II. 高學歷 失業의 發生에 대한
理論的 接近 | 方案 |
| III. 高學歷 失業의 現況 | V. 結 論 |

I. 序 論

최근에 들어와 '국가경쟁력 강화'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나 이미 시작한 듯한 21세기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한국은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하루 빨리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지금 생산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반면 고학력 인력은 남아돌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 실업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고학력 실업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 박사의 실업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고학력 실업을 해소하여 인적자원 배

* 檀國大 經濟學科 教授

분을 효율화시킨다면 국가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고학력 실업의 발생과 현황을 분석한 다음 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본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고학력 실업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제Ⅲ장에서는 고학력 실업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제Ⅳ장에서는 고학력 실업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Ⅱ. 高學歷 失業의 發生에 對한 理論的 接近

고학력 실업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학력 실업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전문대, 대졸, 석사 중심의 실업을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으로, 나머지 실업은 '박사 실업'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이 박사 실업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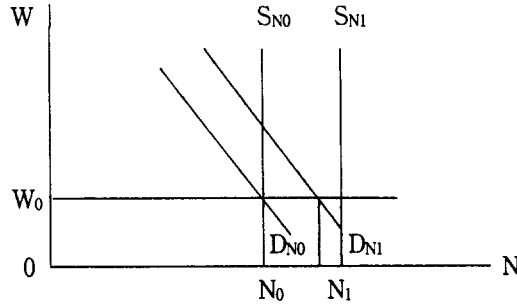
1. 一般的인 高學歷 失業

실업이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공급 현상을 말한다. 노동시장이란 이윤극대화를 실현하려는 사용자와 효용극대화를 실현하려는 근로자가 서로 경쟁하는 곳으로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고학력 실업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은 한국의 일반적인 고학력 노동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右下向的인 D_{N0} 로, 노동의 공급곡선은 교육부의 전문대, 4년제대학, 석사과정의 정원규제체도를 바탕으로 수직적인 S_{N0} 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기간 분석을 사용하기로 하고 제1기에서 고학력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고학력 근로자의 임금은 W_0 , 고용은 N_0 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는 D_{N1} , 노동의 공

[그림 1] 일반적인 고학력 노동시장



급은 S_{N1} 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림 1]의 고학력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때 임금변화가 신축적이지 않으면¹⁾ 이 결과는 실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2기에서의 실업은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가요인에 초점을 맞춰 고학력 실업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2. 博士 失業

박사 실업 역시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박사의 경우에 대내적으로는 교육부가 정원을 규제해 오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임금변화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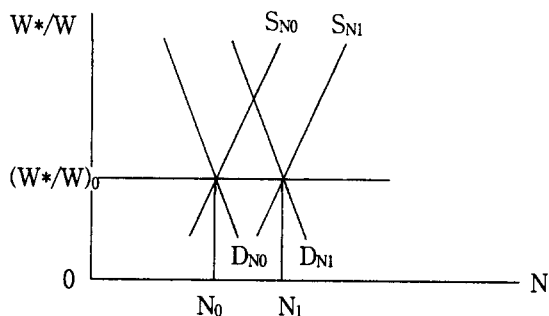
박사 노동시장에서는 흔히 임금을 다른 직종의 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율인 임금격차로 나타내어 사용한다. 박사의 경우에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처럼 右下向의인 곡선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박사 노동의 공급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외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심화될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右上向의인 곡선으로 나타낸다. [그림 2]는 박사 노동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논리의 단순화를 위해서 2기간 분석을 적용하기로 한다. 초기에 노동에 대한 수요 D_{N0} 와 노동의 공급 S_{N0} 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박사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다른 직종의 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율인 $(W^*/W)_0$, 고용은 N_0 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는 D_{N1} 로, 노동의

1) 실제로 평균임금에 대한 대졸 이상의 임금으로 나타낸 임금격차를 보면, 그 지수는 1985년에 218.5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163.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박사 노동시장



공급은 D_{N0} 로 이동한다고 하자. 이 결과 그림에서는 본래의 임금수준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 임금변화가 신축적이지 않으면²⁾ 이 결과는 실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2기에서의 실업은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가요인에 초점을 맞춰 박사 실업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III. 高學歷 失業의 現況

제III장에서는 한국의 고학력 실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는 고학력 실업을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과 박사 실업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一般의인 失業의 現況

<표 1>은 연도별 한국의 실업률과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 이는 일반적인 고학력 노동시장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직종의 평균임금에 대해 임금이 가장 높은 행정·관리직의 상대적 임금으로 나타난 임금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임금격차는 1985년에 252.8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206.2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1년에 임금격차는 230.8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금격차가 198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는 박사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나 있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졸 이하 학력의 실업자는 절대수나 구성비에 있어서 최근에 이를수록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다. 둘째, 고졸 학력 실업자는 구성비에 있어서 남·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셋째, 우리의 관심대상인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학력 실업자는 1985년 이후 남·녀 함께 절대수에서는 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구성비에서는 1989년경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대졸학력 실업자수가 1985년 이후 매년 10만~12만 명선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93년 11월에 발표된 『1992년 고용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실업자 구성비는 3년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실업자 48만 4천명 가운데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15.4%, 전문대졸 이상은 8.4%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자 구성비는 23.8%에 이르고 있는데 이 비율은 <표 1>의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구성비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표 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의 경우 실업자수는 1992년의 46만 4천 명보다 8만 7천명이 많은 55만 1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졸 실업률은 1992년의 3.6%

<표 1> 교육정도별 실업자수와 그 구성비

(단위 : 1,000명, %)

		총수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대졸이상 평균	전국실업률
1985	남자	480(100.0)	183(38.1)	219(45.6)	78(16.3)	(17.5)	4.0
	여자	141(100.0)	38(27.0)	72(51.1)	32(22.7)		
1986	남자	480(100.0)	171(35.7)	217(45.2)	93(19.4)	(20.3)	3.8
	여자	131(100.0)	30(22.9)	69(52.7)	31(23.7)		
1987	남자	397(100.0)	129(32.5)	189(47.6)	79(19.9)	(21.4)	3.1
	여자	122(100.0)	29(23.8)	61(50.0)	32(26.2)		
1988	남자	315(100.0)	88(27.9)	160(50.8)	68(21.6)	(23.2)	2.5
	여자	120(100.0)	27(22.5)	60(50.0)	33(27.5)		
1989	남자	325(100.0)	81(24.9)	159(48.9)	86(26.4)	(25.2)	2.6
	여자	134(100.0)	34(25.3)	70(52.2)	31(23.1)		
1990	남자	318(100.0)	74(23.2)	164(51.6)	80(25.1)	(25.3)	2.4
	여자	133(100.0)	25(18.8)	74(55.6)	34(25.6)		
1991	남자	287(100.0)	67(23.3)	151(52.6)	69(24.0)	(23.2)	2.3
	여자	150(100.0)	27(18.0)	90(60.0)	33(22.0)		
1992	남자	303(100.0)	67(22.1)	166(54.8)	70(23.1)	(23.5)	2.4
	여자	161(100.0)	28(17.4)	94(58.4)	39(24.2)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보다 훨씬 높은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졸 실업자수는 14만 1천명에 이르고 있어서 (1992년에는 10만 9천명) 최근에 들어와 고학력 실업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졸학력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감소추세의 대졸 취업률과 높은 취업경쟁률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졸 취업률을 보기로 하자. 전문대 취업률은 첫 졸업생이 배출된 1981년의 4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76%를 기록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취업률은 가장 높았던 1979년의 81%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58%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졸업생수가 크게 증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4년제 대학 취업률의 감소는 대졸 실업자수의 누적을 의미할 것이다. 또 대졸학력의 높은 취업경쟁률의 심각성에 관해서 김재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92년 10월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주요기업의 평균 취업경쟁률은 14.1 대 1로 나타났다으며, 정보통신 등 일부 유망업종에서는 경쟁률이 최고 90 대 1까지 기록하였다. 49개 국내 주요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사시험 실태에 따르면 총 11,934명 모집에 168,367명이 응시하여 평균 경쟁률 14.1 대 1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그룹 및 일반기업 31개사의 경우 평균 13.8 대 1, 은행 18.3 대 1, 보험 16.1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91년 전기대학 입시지원률 4.1 대 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³⁾

이처럼 치열한 취업경쟁률은 대졸학력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博士 失業

한국에서 박사 실업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사회비평』 제10호(1993년 말에 발간)에서 『박사 실업의 사회학: 한국 지식시장의 위기』를 특집으로 다루게 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박사 실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사 실업문제를 분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비평』은 1993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의 정치학·사회학·행정학·경제학 등

3) 김재원, 『학교·학과의 선택은 이렇게 하라』,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3. 12, p. 61.

사회과학분야 박사 실업자 280여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회수된 9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박사 실업자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박사 실업자수에 관해서 “1993년 11월 현재, 그동안 사회적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경제학을 제외하고 사회학·정치학·행정학 세 분야에서만 박사 실업자의 규모는 대략 300여명에 달할 정도이다.”⁴⁾ 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분야와 사회과학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한다면 박사 실업자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이를 것이다.

한편 1991년 현재 연구개발인력을 보면 전국적으로 박사는 18,836명으로 이 중 76%인 14,320명은 대학에 있고, 17%인 3,021명은 연구기관에, 그리고 8%인 1,495명은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⁵⁾. 그러나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박사연구원은 부족률이 19%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원들이 대학·국공립 연구기관을 선호하는 데다 임금·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쨌든 이공계 중심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오히려 박사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박사 실업의 현황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에 관해서 반드시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 강사들은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표 2> 대학교육기관 전임교수 대 대학강사 비율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전 임 교수수	국공립	8,741	9,041	9,340	9,658	10,078	8,951	(9,394)
	사 립	19,570	20,396	21,593	22,623	24,081	19,446	(20,457)
	전 체	28,311	29,437	30,933	32,281	34,159	28,397	36,789
대 학 강사수	국공립	3,218	4,215	4,748	5,294	5,671	5,680	(5,913)
	사 립	17,943	18,302	22,296	23,552	24,913	20,178	(21,185)
	전 체	21,161	22,517	27,044	28,846	30,584	25,858	37,293
강 사 비 율	국공립	37	47	51	55	56	63	(63)
	사 립	92	90	103	104	103	104	(104)
	전 체	75	76	87	89	90	91	101

주: 1) 1992년 통계는 전문대를 제외한 121개 4년제 대학에 국한된 통계임.

2) 1993년 통계 중 ()안 수치는 교육대와 개방대를 제외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통계만을 합한 것임.

3) 강사비율 = 대학강사수 / 전임교수 수 × 100

자료: 文成皓, 「대학강사문제 해결의 방향」, 『大學教育』 제66호, 1993. p.75.

4) 김용학·서병훈·송호근·염재호, 「박사 실업자: 학력사회가 밀어낸 지식인」, 『사회비평』 제10호, 나남, pp.155~156.
5) 鄭眞和, 『研究開發人力の 管理實態 및 改善方案』, 産業研究院, 1993. 12.

‘직업’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 ‘직업’ 강사들이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학강사들도 박사학위과정에 있지 않는 한 강의 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사를 박사 실업에 포함시킨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전국적으로 대학강사수는 1993년의 경우 37,293명에 이르고 있으며(이들 중 ‘직업’ 강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음) 전임교수에 대한 강사비율은 약 90%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표 2와 부표 2 참조) 박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IV. 高學歷 失業의 發生과 解消方案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고학력 실업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고학력 실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학력 실업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은 이론적인 접근에서 언급했듯이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질 것이다.

1. 一般的인 高學歷 失業의 發生原因

가.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

1) 수요측면의 변화

일반적인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은행, 연구소, 중소기업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가운데서 대기업은 가장 큰 수요자이다.

가)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고용증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신규사원 채용 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1990년의 9.6%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9.1%, 1992년에는 5.0%, 그리고 1993년에는 5.6%를 기록했다. 또 고용증가율은 비농의 경우 1990년에는 4.6%였다가 1991년에는 4.7%, 1992년에는 2.7%, 그리고 1993년에는 3.6%를 기록했다.

따라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최근 저성장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낮았기 때문에 고학력 실업이 발생했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 고학력 노동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수요자인 연구소, 은행, 중소기업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우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석사 부족률이 13.9%, 학사 부족률이 6.9%나 될 정도로 고학력 실업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나) 기업의 수요에 부적합한 교육 내용

1994년 신입생 모집에서 대졸자 2천 3백명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전문대에 재입학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⁶⁾ 이는 대졸 학력이 질적인 면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학력 실업은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적 여건 못지않게 기업의 수요에 부적합한 질적인 문제-노동의 질이 낮으면 생산성도 낮기 때문에 기업은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를 기피할 것이다-로 인해서도 발생하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李周浩 박사는 “1981년의 대학중원과 1980년대의 실업계 고교의 위축을 양측으로 한 고학력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직업세계와 잘 연결되지 못하는 일반계 고졸자와 대졸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⁷⁾”라고 쓰면서 기업의 수요에 부적합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공급측면의 변화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접근에서 우리는 고학력 실업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고학력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추세, 대학재학생수의 증가추세, 졸업생수의 증가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대학입학 정원이나 대학생수가 철저히 교육부의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정원의 증가추세 등은 고학력 노동의 공급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은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이후부터 논의한다면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율은 1980년에 17.5%, 1981년에 23.4%를 기록했다가 5.3% 이하 수준으로 감소, 1986년에는 0%를 기록한 후 1988년에는 다시 12.6%의 증가를 보였다가 최근까지는 약 3.0%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결과 1980년에 12만명 정도이던 대학 입학정원은 1991년에는 2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

6) 중앙일보, 1994. 3. 11.

7) 李周浩, 「青年層 雇傭問題에 대한 制度的 接近」,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3호, 1993 가을, p. 110

<표 3>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추세

(단위: 명)

	정원	증가수	증가율		정원	증가수	증가율
1970	37,190	—	—	1981	144,020	27,320	23.4
1971	39,175	1,985	5.3	1982	151,720	7,700	5.3
1972	41,770	2,595	6.6	1983	155,840	4,120	2.7
1973	44,870	3,100	7.4	1984	159,900	4,060	2.6
1974	45,950	1,080	2.4	1985	165,780	5,880	3.7
1975	53,790	7,840	17.1	1986	165,780	0	0.0
1976	57,855	4,065	7.6	1987	165,780	0	0.0
1977	61,630	3,775	6.5	1988	186,590	20,810	12.6
1978	70,710	9,080	14.7	1989	192,340	5,750	3.1
1979	99,360	28,650	40.5	1990	196,340	4,000	2.1
1980	116,700	17,340	17.5	1991	202,070	5,730	2.9

주: 1) 증가수는 전년대비 증가 정원수를 나타냄.

2) 1981~1987년은 졸업정원 기준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입학정원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發展 10個年 計劃(1992~2001)」, 1992. 12, p.49.

고 있다. 대학정원의 이같은 높은 증가는 대학의 학생수의 증가와 졸업생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표 4>는 연도별 각종 대학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대 이상의 학생수는 1985년의 1,277,828명에서 1993년에는 1,687,222명으로 41만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또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수는 1985년에 19만 2천명이었는데 1993년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졸학력의 신규근로자가 매년 30만명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의 증가를 웃도는 공급의 과다한 증가로 인해 실업이 발생했으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졸 근로자의 이같은 과다한 공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고학력 인력공급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인 석사의 경우 재학생수의 증가율(표 4 참조)은 1987년부터 1992년 기간 동안 연평균 6.3%에 이른다. 이는 대학교 재학생 증가율 4.0%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최근 대졸 학력의 취업부진이 가져온 고학력 인플레이션에 관한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결과 최근에 들어와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둔화되었고 둘째, 대

<표 4> 대학종류별 학생수

(단위: 명)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	각종학교(대학)	합계
1965	23,159	5,920	105,643	3,842	3,072	141,636
1970	33,483	12,190	146,414	6,640	2,709	201,436
1975	62,866	8,504	208,986	13,870	2,993	297,219
1980	165,051	9,425	406,979	33,939	4,058	619,452
1985	242,117	18,174	931,884	68,178	17,475	1,277,828
1989	291,041	17,182	1,020,771	81,171	24,094	1,434,259
1990	323,825	15,960	1,040,166	86,911	23,947	1,490,809
1991	359,049	16,019	1,052,140	91,304	22,449	1,540,961
1992	404,996	16,504	1,070,169	96,577	19,759	1,608,005
1993	456,227	17,158	1,092,464	103,974	17,399	1,687,222

자료: 교육부, 「'93 教育政策 推進成果와 課題」, 1994. 1, pp.228~229.

학정원의 지나친 증가로 인해 고학력 노동의 공급이 초과상태였으며 셋째, 대학교육의 질이 기업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낮아지는 점이다.

나. 박사 실업

1) 수요측면의 변화

박사에 대한 수요는 한국의 경우 주로 대학, 대기업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가운데서 대학은 가장 큰 수요자이다. <표 5>는 연도별 각종대학의 교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학생수가 증가한 이후의 연도인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교수 증가율은 약 5.9%이고 교수수는 1985년에는 33,895명이었는데 1993년에는 1985년의 절반수준인 15,726명이 증가하여 49,621명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같은 기간 동안 대학생수의 연평균 증가율 3.6%와 비교할 때 교수수의 5.9% 증가율은 매우 높다.

여기에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채용한 박사급 연구원의 수도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 기술개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이는 1981년도에 51개

<표 5> 대학종류별 교원수

(단위: 명)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	각종학교(대학)	총계
1965	890	305	5,470	.	301	6,966
1970	1,637	660	7,944	.	194	10,435
1975	2,748	791	10,242	.	200	13,981
1980	5,488	564	14,696	.	152	20,900
1985	6,406	623	26,459	.	407	33,895
1989	6,999	679	31,675	.	597	39,950
1990	7,382	694	33,340	.	504	41,920
1991	7,953	693	35,175	.	410	44,231
1992	8,518	719	32,787 ¹⁾	.	340	42,364
1993	9,024	736	39,511	.	350	49,621

주: 1) 본래의 자료에서 誤記된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교육부, 「'93 教育政策 推進成果와 課題」, 1994.1, pp.232~233.

로 출발한 이후 1988년에 500개소, 1991년 4월에 1,000개소, 그리고 1993년 5월에는 1,500개소를 넘어서고 있다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수는 1991년 현재 4,516명에 이르고 있어서 연구소의 박사 수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수수의 증가와 박사를 고용하는 연구소의 증가를 통해서 박사에 대한 수요 증가가 그동안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고 논의해 왔다.

2) 공급측면의 변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사 공급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자료관리를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박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지라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관한 자료는 박사 실업의 발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표 6>은 연도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관한 자료이다.

국내박사는 각 분야에서 1985년의 1,470명으로부터 1992년의 3,82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수는 5만여명에 이르고 박사 증가율은 연평균 14.6%에 이른다. 이들 박사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근무하거나 전문직을

8) 鄭眞和, 앞의 책, p.66.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 자료를 통해서 박사 실업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박사의 공급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강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박사 공급의 원인이 되는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수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박사의 경우, 재학생수는 1987년의 11,99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18,063명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석사 6.4%보다 훨씬 높은 8.6%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고학력 취업부진이 가져온 고학력 인플레이션에 관한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교수수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박사 재학생수의 증가율은 박사 실업의 발생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박사 공급의 높은 증가로 인해 박사 실업이 발생했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수와 그 증가율

(단위:명 ; %)

구분	성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석사과정	남자	48,470	50,886 (5.0)	53,887 (5.9)	56,910 (5.6)	59,192 (4.0)	61,675 (4.2)
	여자	12,432	13,814 (11.1)	15,518 (12.3)	17,223 (11.0)	19,090 (10.8)	20,948 (9.7)
	계	60,902	64,700 (6.2)	69,405 (7.3)	74,133 (6.8)	78,282 (5.6)	82,623 (5.5)
박사과정	남자	10,354	11,291 (9.0)	12,602 (11.6)	13,610 (8.0)	13,984 (2.7)	15,042 (7.6)
	여자	1,641	1,863 (13.5)	2,171 (16.5)	2,469 (13.7)	2,657 (7.6)	3,021 (13.7)
	계	11,995	13,154 (9.7)	14,773 (12.3)	16,079 (8.8)	16,641 (3.5)	18,063 (8.5)
전 체	남자	58,824	62,177 (5.7)	66,489 (6.9)	70,520 (6.1)	73,176 (3.8)	76,717 (4.8)
	여자	14,073	15,677 (11.4)	17,689 (12.8)	19,692 (11.3)	21,747 (10.4)	23,969 (10.2)
	합계	72,897	77,854 (6.8)	84,178 (8.1)	90,212 (7.2)	94,923 (5.2)	100,686 (6.1)

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수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개방대학, 과학기술원, 한국정신문화원 연구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교육부 대학정책실, 「高等教育指標의 國際比較」, 1993. 7, pp.106~108.

2. 高學歷 失業의 解消方案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고학력 실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고학력 실업의 현황과 발생원인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고학력 실업의 해소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고학력 실업의 해소방안은 노동시장에서의 균형달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가.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

1) 수요측면에서의 방안

일반적 고학력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측면에서는 대졸 학력에 대한 수요확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경기활성화 추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경기상태에 맞춰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의 높은 취업경쟁률이나 고학력 실업자수의 증가는 기업이 제공한 일자리 수가 지나치게 적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실업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으로 하여금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활성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그런데 노동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 재벌그룹은 1993년에 대학졸업 신규근로자를 1992년보다 25.6%가 증가(5,318명)한 26,095명을 채용했다고 한다⁹⁾. 1992년의 경제성장률(5.0%)과 고용증가율(비농의 경우 2.7%)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3년의 이같은 증가는 경기회복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79년에 경기호황으로 대졸 취업률이 무려 81%를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의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치달게 되리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할 때 대졸학력 실업도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 대졸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고용세액공제제도의 실시

고용세액 공제제도(또는 임금보조정책이라고도 함)란 정부가 세액공제나 직접보조를 통

9) 조선일보, 1994. 4. 2, p.30. 동아일보, 1994. 4. 2, p.30.

해서 기업가의 임금비용 감소를 가져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조대상 에 따라 신규채용보조나 고용보조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조정, 고용보호, 고용증 대, 고용기회 창출, 지역적인 고용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¹⁰⁾.

한국이 대졸학력의 실업을 감소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 보 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 실시할 것이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제공

대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고학력 실업을 줄이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대학이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94년에 들어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공급측면에서의 방안

일반적 고학력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은 대학생수 의 증가를 규제하고, 이공계열 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비율을 조정하고 전문대 학생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 대학입학 정원의 지나친 증원의 규제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철저히 규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대학정원을 지 나치게 증가시킴으로써 고학력 실업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 대학생의 절대수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는 이제 별로 의 미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대학생수의 빠른 증가로 인한 고학력 실업문제는 크게 염려될 것 같지는 않다.

나) 이공계열 중심으로의 대학생수 조정

최근 교육개혁심의회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수는 규제 하면서 이공계열 학생수의 조정은 여건을 갖춘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계획이라고

10) 朴東雲, 「低賃金解消와 雇傭擴大政策 - 最低賃金制 代案으로서의 賃金補助政策」, 『産業研究』 제 9집, 단국대 부설 産業研究所, 1986, pp.1~18.

발표한 바 있다. 또 그동안 규제대상이 되어 온 수도권 지역의 이공계 학생수도 1995년부터는 2배로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같은 개혁은 아직 진행중이기는 하나 앞으로 인문·사회계열과는 달리 이공계열 중심의 학생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로 인해 고학력 실업은 감소될 전망이다.

다) 전문대 학생수의 증가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 학생수를 크게 증가시켜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문대의 취업률은 4년제의 취업률보다 훨씬 높아왔기 때문에 전문대 학생수의 증가는 고학력 실업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된다.

나. 박사 실업

1) 수요측면에서의 방안

박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가) 대학교수수의 증원

박사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교수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교수수의 증가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고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춤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표 7>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대학발전지표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1990년의 경우 평균 63.5%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표 2>와 <부표 2>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임교수 확보율은 앞으로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평균 35.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준이 우수한 대학(상위 10%)의 20.1명에 비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앞으로 크게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대학교수협회가 대학발전 10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표 8 참조) 1992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감소를 통해서 국공립대의 경우 교수수는 매년 약 1,000여명씩 모두 9,637명, 사립대의 경우 매년 약 2,300여명씩 22,230명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일 이같은 내용이 실현된다면, 이는 박사 실업의 감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표 7> 대학교수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교육의 주요 현황(1990)

	상위 10%	상위 30%	중간	하위 30%	하위 10%
전임교수의 확보율(%)	91.6	77.5	63.5	58.8	51.9
교수 1인당 재학생수(명)	20.1	25.8	35.7	41.4	51.1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수	4.0	6.4	8.6	10.7	12.4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	81.4	62.6	51.9	41.5	22.8
교수의 논문 발표수(편/연)	2.0	1.2	0.9	0.5	0.1
전임교수 인건비(만원/연.명)	2,543	2,047	1,780	1,144	891
교수 1인당 유급 조교수(명)	0.7	0.4	0.3	0.1	0.0
외래강사 강의 비율(%)	12.5	29.3	38.3	46.0	60.8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發展指標』, 1990.

<표 8> 연도별 전임교수 추경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국공립대학 학생수(천명)	260	272	284	297	311	325	326	333	336	336	336
교수당학생수	26.4	26.3	25.1	24.1	23.3	22.7	21.3	20.4	19.4	18.3	17.0
교수 수 ¹⁾	9,863	10,327	11,327	12,327	13,327	14,327	15,327	16,327	17,327	18,327	19,500
(증가수) ²⁾		(4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73)
(증가율) ²⁾		(4.7)	(9.7)	(8.8)	(8.1)	(7.5)	(7.0)	(6.5)	(6.1)	(5.8)	(6.4)
사립대학 학생수(천명)	681	709	734	761	790	820	835	847	853	853	853
교수당학생수	36.7	35.9	33.3	31.3	29.6	28.3	26.7	25.2	23.8	22.4	21.0
교수 수 ¹⁾	18,57	19,754	22,054	24,354	26,654	28,954	31,254	33,554	35,854	38,154	40,500
(증가수) ²⁾	0	(1,184)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2,346)
(증가율) ²⁾		(6.4)	(11.6)	(10.4)	(9.4)	(8.6)	(7.9)	(7.4)	(6.9)	(6.4)	(6.1)
전 체 학생수(천명)	941	981	1,018	1,058	1,101	1,145	1,161	1,180	1,189	1,189	1,189
교수당학생수	33.1	32.6	30.5	28.8	27.5	26.5	24.9	23.7	22.4	21.1	20.0
교수 수 ¹⁾	28,43	30,081	33,381	36,681	39,981	43,281	46,581	49,881	53,181	56,481	60,000
(증가수) ²⁾	3	(1,648)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519)
(증가율) ²⁾		(5.8)	(11.0)	(9.9)	(9.0)	(8.3)	(7.6)	(7.1)	(6.6)	(6.2)	(6.2)

주: 1) 교수수는 1인당 학생수(대학원생 포함) 비율.

2)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發展 10個年計劃(1992~2001)』, 1992. 12, p.115.

나) 경기활성화 추진

앞에서 논의한 대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연구소나 산업체는 박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박사수요 확대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는 박사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왔고 이들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최근에 들어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통폐합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이는 박사실업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은 정부」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자원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박사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사실업자의 전문성을 파악한 후에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대학강의를 전공자가 담당하는 제도의 확립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강의를 전공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개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김재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경제학 전공의 전임교수가 있는 대학의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교육대와 전문대 이상을 포함하면 16%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경제학회 회원 중 노동경제학 전공자의 비율은 불과 4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준 바 있다¹¹⁾. 만일 대학강의를 전공자에게 맡기는 방안이 확립된다면 남아도는 박사인력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교수조기정년제도의 실시

교수조기정년제도의 실시는 앞에서 언급한 고용세액공제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제안해 오고 있는 교수조기정년제도의 실시는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로교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수의 세대교체를 이룩하고 이 결과 젊고 유능한 박사들을 대학에 영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교육신문」 1992년 6월 1일자에 실린 교수조기정년제도에 관한 글을 참고로 <부록 2>에 게재한다.

11) 金在源, 「노동경제학의 의의와 방법론 - 한국 노동경제학의 연구동향과 노동경제학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pp.30~31. 이 논문은 한국노사관계학회, 『産業關係論集』(94년 6월)에 게재될 예정이다.

2) 공급측면에서의 방안

박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은 박사과정 학생수의 증가를 규제하고 전공별 학생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박사과정 학생수는 대외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박사 실업은 공급측면의 규제만으로는 감소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박사 노동시장에서 박사임금의 변화를 통해서 박사의 공급이 조정되는 것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結 論

이 글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 실업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학력 실업 문제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고학력 실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고학력 실업의 현황, 고학력 실업의 발생원인을 살펴본 다음 고학력 실업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학력 실업을 '일반적인 고학력 실업'과 '박사 실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고학력 실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학력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고학력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에 이를수록 대졸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취업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예로 1993년에 대졸 실업자수는 1992년의 10만 9천명보다 3만 2천명이 더 많은 14만 1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실업이 최근에 들어와 증가추세를 보이게 된 주요 원인은 수요측면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기업, 은행, 기업연구소, 중소기업 등이 신규채용을 낮게 책정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급측면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학입학 정원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부진은 또 고학력 인플레이션까지 가속화시킴으로써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고학력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경기활성화, 신규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

세액공제제도의 실시,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제공, 교수확보율 제고와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감소를 통한 교수수의 증원,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화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 실업자의 흡수, 전공자의 대학강의담당제도 확립, 교수조기정년제도의 실시 등이 모색되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대학정원의 지나친 증원규제, 이공계열 중심으로의 대학생수 조정, 전문대 학생수의 증가, 박사과정 학생수의 지나친 증가규제 등이 모색되었다.

그런데 고학력 실업은 단기에서는 경제여건에 따라 예상과 달리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에서는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고학력 실업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학력 인력 가운데 박사인력에 관해서는 인력양성계획은 물론 인력활용계획까지도 세워서 효율적인 인적자원배분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용학·서병훈·송호근·염재호, 「박사실업자: 학력사회가 밀어낸 지식인」, 『사회비평』, 제10호, 나남, pp.154~180.
- 김재원, 『학교·학과의 선택은 이렇게 하라』,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3. 12.
- _____, 「노동경제학의 의의와 방법론 - 한국 노동경제학의 연구동향과 노동경제학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勞使關係論集』, 1994년 6월 발간 예정.
- 文成浩, 「대학강사문제 해결의 방향」, 『大學教育』, 제66호, 1993. 11, pp.72~77.
- 朴東雲, 「低賃金解消와 雇傭擴大政策 - 最低賃金制度 代案으로서의 賃金補助政策-」, 『産業研究』, 제9집, 단국대 산업연구소, 1986, pp.1~18.
- 朴東雲·李重熙, 『韓國企業과 雇傭創出』, 全經聯, 1990. 12. 7.
- 魚秀鳳, 『勞動市場變化와 政策課題』, 한국노동연구원, 1991. 6.
- 李周浩, 「青年層雇傭問題에 대한 制度的 接近」,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3호, 1993 가을, pp.95~130.
- 鄭眞和, 『研究開發人力の 管理實態 및 改善方案』, 産業研究院, 1993. 12.
- 기타 관련 자료집.

<부록 1>

<부표 1> 연도별 국내 박사학위 수여자 인원(1985~93)

(단위: 명)

	사 회 계 열 ¹⁾										총계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무역학	문학			수산학																
							철학	교육학	신학			심리학	신문학	이학	공학	의학	치의학	보건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간호학	가정학	농학		
1985	19	35	43	39	22	0	158	10	25	1	0	0	209	247	446	61	8	8	24	8	10	0	0	98	6	1,470
1986	15	35	72	38	31	0	191	11	29	0	4	4	254	290	469	73	4	20	20	12	35	0	0	99	1	1,666
1987	28	56	81	48	39	0	252	35	35	0	0	0	367	418	503	59	13	33	6	6	38	0	0	120	5	2,136
1988	31	55	128	72	48	0	334	36	47	0	0	0	422	457	558	65	6	39	11	11	39	0	0	148	2	2,464
1989	21	81	128	55	41	0	326	29	64	0	0	0	419	556	456	72	8	29	12	12	34	0	0	133	1	2,503
1990	32	82	142	70	54	0	380	52	58	0	0	0	407	602	440	71	7	31	11	11	32	0	0	103	3	2,614
1991	59	84	172	108	66	0	489	49	104	3	0	0	497	714	663	102	4	47	17	17	38	0	0	142	3	3,356
1992	54	92	208	90	97	0	541	62	139	4	0	0	541	872	635	108	11	43	19	19	41	42	6	137	6	3,821
1993	44	113	189	90	94	7	537	64	123	4	0	0	274	561	421	64	13	23	15	15	35	6	20	85	6	2,733 ²⁾
총계	303	633	1,163	610	492	7	3,208	348	624	12	4	4	3,390	4,717	4,591	675	74	289	111	111	302	48	26	1,065	33	47,362

주 : 1) 사회계열에는 편의상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무역학을 포함시켰음.

2) 1993년 8월 졸업의 경우 이공계의 의학계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은 『大學教育』자료에서 본래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3년의 총계 수치는 실제 수치보다 적음.

자료 : 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각호 참조후 재작성.

<부표 2> 교원별 현황(1992)

		계	전 임 교 원					객원 교수	명예 교수	대우 교수	시간 강사
			소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원수 (명)	대 학	53,842	28,370	10,109	8,406	7,056	2,799	401	799	253	24,019
	전문대학	15,136	6,918	991	2,117	1,796	2,014	34	6	245	7,933
	계	68,978	35,288	11,100	10,523	8,852	4,813	435	805	498	31,952
구성비 (%)	대 학	100.0	52.7	18.8	15.6	13.1	5.2	0.7	1.5	0.5	44.6
	전문대학	100.0	45.7	6.5	14.0	11.9	13.3	0.2	0.04	1.6	52.4
	계	100.0	51.2	16.1	15.3	12.8	7.0	0.6	1.2	0.7	46.3

자료: 교육부 대학정책실, 「高等教育指標의 國際比較」, 1993. 7, p.37.

<부록 2>

教授 早期停年制를 導入하자*

- 박사 실업의 해소방안와 관련하여 -

단국대가 최근 고분자화학 교수 1명을 뽑는 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무려 53명이나 응모했다. 이는 학문의 전문분야에 걸쳐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고학력 인력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음을 말해준다.

필자의 전공분야인 경제관련 학회에 가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금방 드러난다. 세미나장에는 외국의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고 유능한 학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얼굴이라도 만나게 되면 제발 대학에 갈 수 없느냐고 간절하게 물어온다.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 하나는 최근 시골 전문대 교수 자리를 얻어 실직자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눈을 밖으로 돌려 보면 한국은 지금 고학력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21세기에는 천연자원이나 노동 대신 인적자원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경제전쟁에서는 인적자원이 승패를 가름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趙淳 전 부총리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뀌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질서는 비단 상품의 무역에 관한 질서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경쟁, 나아가서는 두뇌 및 지식의 경쟁, 국가나 기업간의 능력의 경쟁에 관한 질서가 될 것이다. 경쟁의 영역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엄청나게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다. 따라서 도전에는 반드시 응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가 주는 수많은 도전에 대해 응전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응전의 한 방법으로서 교수조기정년제의 도입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이 1960~70년대를 통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 이 글은 1992년 6월 1일자 「교수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박사 실업의 해소방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록에 포함시켰음을 밝혀 둔다.

6·25를 겪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이나 소를 팔아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 머 리속에 지식을 쌓아두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인력이 한때는 초과 공급상태를 나타냈으나 결국에는 고도성장의 주역이 된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국의 고도성장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 못지않게 고학력 인력의 공급도 확대시켜 왔다.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은 유망한 일자리를 얻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대부분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의 경우 한국에서 박사가 무려 3천명이나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학력 인력은 거의 전문분야에 걸쳐 초과공급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래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학력 인력활용정책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업상태의 고학력 인력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교수조기정년제 도입의 필요성이다.

교수의 조기정년제란 교수가 65세 정년 퇴직 때까지 벌어들일게 될 급여를 일시에 받거나 연금형식으로 매달 받는 등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주어지게 될 때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법정퇴직연령 이전에 대학을 떠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큰 호응을 받으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도 건강상의 이유 등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대학의 예산만 가지고 교수의 조기정년제를 실시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학은 조기정년퇴직을 원하는 교수들에게 65세 때까지의 급여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을 위해서 지출을 또 추가로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의 조기정년제를 실시하려면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교수의 조기정년제를 실시하는데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조기정년이 적용될 수 있는 학문분야와 교수연령의 결정, 조기정년 후에도 적용되어야 할 보험과 연금의 수혜방법, 조기정년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교수의 인적조건, 필요경비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교수조기정년제 실시의 주목적이 젊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대학에 불러들여 학문의 세대교체를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본다면 정부는 '人材銀行'을 신설하여 남아도는 고학력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신규채용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준높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남아도는 고학력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이같은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교수의 조기정년제는 처음에는 첨단과학과 같은 특수분

야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다가 점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학문의 빠른 세대교체를 통해 세계화에 따른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수의 조기정년제 실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의 조기정년제 - 이는 남아도는 고학력 인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대교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실시를 정부당국에 제안한다.